

201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 기출문제

1. 인문·사회계열, 간호학과(인문) 논술전형 문제

문항

1

(가)에 제시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나)에 나타난 세 가지 역사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200~250자 / 20점)

가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가치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자 막스 베버(Weber, M.)는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할 때 연구자는 권력 분립, 선거 제도, 여론, 시민 의식, 자발적 결사체, 사회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 불평등 구조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다면, 이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연구 주제 선정 이후, 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 인식과 논리적인 추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즉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에는 그의 가치 개입이 다시 불가피해진다. 사회 구조적 요인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중에서 특히 사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복지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객관성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막스 베버는 연구 주제 선정 이후에서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까지 가치 중립이 지켜진다면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일제는 식민 사관을 날조하여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이에 우리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한국사의 자율적·주체적 발전을 부정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식민 사관에서는 한국이 반도 국가로서 대륙이나 해양 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역사는 늘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도 역사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었으며,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근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은식, 신채호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하였다. 이들은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하여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면 언젠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임시 정부에서 활동한 박은식은 민족정신으로서 '조선 국혼'을 강조했으며, 《한국통사》와 《한국 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해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정리하였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에 몸 바쳐 활동한 신채호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은 고대사와 실학 연구를 통해 식민 사관의 타율성론을 비판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나,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실증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병도, 손진태 등은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 사학을 정립하였다. 실증 사학은 일제 강점기에 전문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형성된 학풍으로 '역사가는 현재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과거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특징이다. 실증 사학자들은 역사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사관과 가치관을 배제하고 치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들은 주관적인 사료 해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였다.

문항 1의 출제의도, 해설 및 평가기준

01

출제의도

- 가) 제시문을 일정한 관점에서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다) 주어진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라)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02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제시문 (가)의 세 단계의 특징에 따라 제시문 (나)의 사관들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하라고 함으로써 그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가치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지적한 막스 베버의 주장을 소개한 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정에 있어서 가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연구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활용에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다시 불가피해진다.
- 제시문 (나)는 일제의 식민 사관, 민족주의 사학, 실증 사학의 각 특징을 비교·대조한 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 식민 사관의 사실 왜곡과 날조는 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이 훼손되어 있으며, 민족주의 사학은 경험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관념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실증 사학은 모든 탐구과정에서 오직 가치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03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동일한 문항을 평가위원 2인 1조로 각자 평가하며 일정 등급 이상 차이 날 경우 재평가

바)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16점

- 제시문 (가)에 제시된 연구방법론에 따라 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에 가치 중립이 필요함을 나타내야 하며, 연구 주제 선정과 결과 활용에서는 가치 개입이 불가피함을 나타내야 한다.
- 일제 식민 사관이 범한 날조, 역사 왜곡이라는 오류가 자료 수집 분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적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 민족주의 사학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지 못함으로써 관념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음을 적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 실증 사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가치 중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함으로써 막스 베버가 말한 연구 주제 선정 및 결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가치 개입의 불가피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적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형식] 4점

가)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 ~ 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나) 분량

- ① 250자 초과 : 1 ~ 2등급 감점
- ② 150자 ~ 2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100자 ~ 1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④ 100자 미만 : F

예시 답안

일제 식민 사관은 우리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였으니 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훼손했으며, 민족주의 사학은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반면 실증 사학에서는 연구 주제 선정 및 결과 활용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가치중립이 시종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마)의 ㉠을 활용하여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50~450자 / 40점)

다

많은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역할도 다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여성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살림과 양육을 담당해야 하고, 남성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방어와 외부활동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다르다. 생물학적 성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사회적 성은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사회화를 통해 각 개인에게 내면화된다. 따라서 사회적 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성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혹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고정 관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 그리고 성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

“잠시만 이리 와 앉으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다시 출유(出遊)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큰댁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絶緣)하시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릴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릴 수 있단 말이오? 사람에게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은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 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人倫)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곤 생각하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아무리 굶주려도 킁소리도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조석(朝夕)을 봉양하고,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기다리는 게 부녀의 아름다운 덕이오.”

“덕요? 난 꼬박 오 년이나 당신을 기다렸지요. 그 전엔 몇 해 동안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내 두 손이 바빠 움직이고 두 눈이 호롱불 빛에 짓물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 뭐가요? 당신은 여전히 유유 자적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며 가슴에 품은 경륜을 뽐낼 뿐이지요.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하고, 실(實)이 없으면 안 되고, 만물에 이롭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십년이나 기약하고 독서했지요? 당신은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꼭 할 거예요.”

마

《대학》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혈구지도(絜矩之道)’를 꼽을 수 있는데, ‘혈’은 헤아림을, ‘구’는 잣대를 뜻한다. 자신의 마음을 척도로 삼아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성경인 “신약전서(新約全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교훈과도 상통한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윗사람이 집안 어른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윗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을 잘 대접하면 백성들은 공손해지고, 윗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 백성들도 저절로 그렇게 본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마음을 척도로 하여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리를 지는 사람이다.

윗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을 뒷사람에게 하지 말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을 대하지 말며, 왼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낀 것을 오른쪽 사람에게 건네지 말라. 이것을 혈구지도라 한다.”

- 《대학》

문항 2의 출제의도, 해설, 평가기준 및 예시답안

01

출제의도

- 가) 제시문을 일정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구체적인 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나가는 문제해결력을 평가한다.
-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을 평가한다.
- 라)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02

문항해설

- 이 문항은 갈등 양상 분석과 그 극복 방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다)에서 사회적 성의 개념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그리고 이로써 파생하는 성 불평등의 과정을 이해한다.
 - 제시문 (라)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 입각하여 의견을 개선하는 남편의 입장과 성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아내의 입장이 대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한다.
 - 제시문 (다)의 사회적 성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제시문 (라)의 구체적 상황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파악한다.
 - 제시문 (라)에 나타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제시문 (마)의 ㉠의 내용임을 이해한다.
- 제시문 (다)는 성 불평등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성이 내면화한 결과임을 설명하는 글이다.
- 제시문 (라)는 허생전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소설이다. 신의, 인륜, 예의, 염치, 기다림 등의 가치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속에서 강조되면서, 양성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제시문 (마)는 《대학》에 등장하는 혈구지도(絜矩之道)의 개념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문구가 함의하는 바를 설명한 글이다.

03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동일한 문항을 평가위원 2인 1조로 각자 평가하며 일정 등급 이상 차이 날 경우 재평가

바)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32점

- 제시문 (다)의 내용은 사회적 성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의 형태, 이로써 발생하는 성 불평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 제시문 (라)에서 남편이 주장하는 신의, 인륜, 예의, 염치, 기다림 등의 가치가 성 역할에 따른 고정 관념의 사회화, 내면화 사례로 적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 제시문 (마)의 '마태복음' 구절에 역지사지의 태도가 담지되어 있음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 자아와 타자의 이상적 관계를 드러낸 제시문 (마) ㉠ 내용이 제시문 (라)의 남편에게서 드러나는 자아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타자로 나아갈 수 있는 원리임을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1 ~ 2등급 감점한다.

[형식] 8점

가)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 ~ 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두 개(분석, 극복 방안 제시)임에 따라 문단 나누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평가

나) 분량

- ① 450자 초과 : 1 ~ 2등급 감점
- ② 300자 ~ 3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200자 ~ 30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④ 100자 ~ 2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⑤ 100자 미만 : F

예시 답안

(다)에 따르면, 사회적 성은 생물학적 성과는 달리 사회화를 통하여 각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인데, 이로써 나타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은 성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의 남편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신의, 인륜, 예의, 염치, 기다림 등의 가치를 아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성 역할에 따른 고정 관념을 표면화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부부 간의 성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성 차별을 야기하는 남성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할 터인데, (마)에 밑줄 친 '마태복음' 구절은 그 해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편이 역지사지의 태도로 아내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때 자기(남성) 중심주의를 벗어나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